

**제목 Theme:**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Haven Seen Salvation**

**본문 Scripture:** 누가복음 2:22-40 절(22-35)

22.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And when the days for their pur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were completed, they brought Him up to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EVERY firstborn MALE THAT OPENS THE WOMB SHALL BE CALLED HOLY TO THE LORD"**)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흑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and to offer a sacrifice according to what was said in the Law of the Lord, "A PAIR OF TURTLEDOVES OR TWO YOUNG PIGEONS."**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And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and this man was righteous and devout, look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And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And he came in the Spirit into the temple; and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carry out for Him the custom of the Law**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then he took Him into his arms, and blessed God, and said,**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Now Lord, You are releasing Your bond-servant to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s,**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A LIGHT OF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And His father and mother were amazed at the things which were being said about Him.**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And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Behold, this Child is appointed for the fall and rise of many in Israel, and for a sign to be opposed--**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and a sword will pierce even your own soul--to the end that thoughts from many hearts may be revealed."****

본문에서는 구약에서 메시야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주님의 시간이 되면서 이루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 탄생 시기인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초대 황제이기도 한 임페라토스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Imperator Caesar Divi Filius Augustus**)로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Gaius Octavius Thurinus**)였으나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한 후에는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즉위하고 온 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을 하게 하였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황제의 영에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호적을 하게 하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와 정훈한 남편 요셉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구약에서 이야기 한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시점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부친이었던 요셉의 고향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호적하려 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여관을 찾을 곳이 없었고(**2:7 절**) 해산할 날과 시간이 다가오면서(**2:6 절**) 말이 없어 비어 있는 어느 마구간에서 출산하였고 아이를 구유에 뉘였다(**2:7 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고 몇 일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면 동방에서 별을 따라 아기를 보려 온 동방의 박사들(**마태복음 2:2 절**)과 주위에서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린 것(**2:8 절**)과 방문한 것(**2:12,15 절**)을 보면 며칠 간은 마구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시기와 로마의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과 그리고 호적하려고 모인 사람들 때문에 여관을 구할 수 없는 것과 마침 누군가에 의하여 비어있는 마구간을 이용하게 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이루어진 예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 장 4 절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차매”는 즉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의 왕(마태복음 2:2 절)으로 태어나신 만 인류의 구세주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므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계급에서 마구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 일이 되었을 때에 천사가 알려 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등록했다고 했습니다(**21 절**)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님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예식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갔는지 갈릴리 나사렛으로 왔다가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3 절**).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메시야가 태어날 것과 그 메시야를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 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메시야가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고 정결 예식의 날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7 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29 절**).

시므온이 성령을 통하여 메시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하여 만민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31-32 절**)라고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33 절**) 하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특징적인 것은 메시야가 오신 것은 유대인 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Gentiles**) 즉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메시야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 장 10 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걸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릴 때도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10 절) 했고 14 절에 천사들이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방인 중에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큰 별이 인도하는 대로 유대 땅 베드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매우 크게 기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0 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내용은 기쁨을 최고로 표현한 것이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 태어나신 만민의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구세주 사역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34-35 절에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예수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제자들과 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며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 로마서 4:21-22 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요한 계시록 14:7 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3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그 약속인 성경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사도행전 1:16 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은 **온 인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 요한복음 **14:18** 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 유대인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재림 때에는 영적인 유대인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 로마서 **2:28-29** 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 예수님이 탄생인 온 인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 마태복음 **24:14** 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셋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시므온은 모세의 율법을 믿은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 요한계시록 **22:20** 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 사도행전 **13:52** 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3** 시므온은 믿음으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 마가복음 **13:33** 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13** 절)